

납골당 면적제한 해제 납골묘·탑은 150평으로

복지부 '장묘법' 시행

종교단체 납골시설 면적 30평 제한으로 논란을 빚었던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령'이 부분적인 보완을 거쳐 이달 13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지난해 11월 입법예고될 당시 100㎡(30평)로 일괄제한했던 종교단체 납골시설 면적은 납골당의 경우 제한을 없애고, 납골묘와 납골탑에 한해서는 500㎡(150평)로 확대됐다. 그러나 2m로 제한했던 납골묘의 높이는 그대로 적용된다.

보건복지부 김현준 사무관은 "이번 최종안은 몇 차례의 공청회를 거

쳐 합리적인 안을 도출해낸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와 관련해 교계 관계자들은 납골묘와 납골탑의 면적이 다소 확대되기는 했지만 화장장지와 납골시설 운영의 실효성 측면에서 볼 때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결정이라는 견해를 보였다.

관계자들은 150평 규모면 납골묘의 경우 많아야 50~60기 밖에 들어설 수 없어 그 이상 설치 불가능한 '운영 지속성' 문제에 부딪힐 가능성이 크며,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하기 힘들다는 단점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유정석 자문위원은 "면적을 확대하는 식의 조치가 정부가 의도한 화장문화 정착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지 의문이 든다"며 "시행과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재검토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명우 기자

실직자 돕기 바자회

조계사, 2월1~7일

조계사(주지 지홍)가 실직자 돕기 기금 마련을 위한 '자비의 바자회'를 2월1일부터 7일까지 조계사 불교회관 1층에서 개최한다.

1일 오전 10시 영부인 이희호 여사가 참석한 가운데 개회식을 갖게 될 이번 바자회에는 경봉·만공·구산·석주·해암·고산 일타 스님의 글씨와 도예가 설봉·보광 스님의 도자기, 오채현·강행복의 석불과 판화 등 100여점의 작품이 전시된다.

한편 조계사는 15일 불교회관 1층에서 주지 지홍스님을 비롯해 사부대중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홈페이지 개동식을 가졌다.

이날 개동된 홈페이지(jijogyesa.net)는 '사찰안내', '신행', '교육·정보', '야단법석' 등의 메뉴로 구성되어 있다. (02)720-1390 한명우 기자



사랑의 쌀 나누기 성북노인종합복지관은 민속명절 설을 맞아 16일부터 19일까지 4일간 관내 무의탁 독거노인 130여명을 대상으로 '사랑의 쌀 나누기' 행사를 가졌다. 이번 행사는 진선여중·고와 관내 초·중·고등학교생들의 쌀 후원으로 이뤄졌으며, 서울지방경찰청 특수기동대 자원봉사자들이 독거노인 가정을 방문해 쌀을 전달했다.

불교복지시설 "한파 여전"

후원금-후원자 최대 40% 감소 경제악화 주원인... "대책 절실"

교계 복지시설의 후원금이 줄고 있다. 97년 IMF 이후 큰 폭으로 감소했던 복지시설 후원금이 잠시 회복세를 보이다 경제여건이 악화되기 시작한 지난해 10월부터 급격히 감소세로 돌아섰다. 감소규모도 적게는 10%에서 많게는 40%까지 이른다. 심지어 보현의 집과 아침을 여는 집 등 노숙자시설의 후원금은 거의 끊긴 실정이다. 이에 따라 각 시설들은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승가원의 경우 매달 평균 2억여 원이던 후원금이 지난해 11월 4천여만 원으로 줄어든 데 이어 1월까지도 감소추세가 계속되고 있다. 후원자 역시 줄어,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신규후원자는 151명인 반면 430명이 후원을 중단했다.

IMF를 기점으로 10%의 감소세를 보였던 연꽃마을은 역시 지난해 10월부터 10% 정도 줄어들었고 이

같은 추세는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불교자원봉사연합회도 20% 정도 감소했다. 후원금 의존도가 30% 정도로 비교적 낮은 편이지만 각 시설들은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복지관들의 상황은 이와 비슷하거나 더욱 심각하다. 길음복지관과 구미 금오복지관의 경우는 40%가량 줄었고, 청담 육수복지관은 20~30%, 그밖에 자양·모전·덕유·본동·속초복지관 등 대부분의 교계 복지관들도 10% 가량 감소했다.

부대사업 구상등 골몰

각 복지시설들은 이같은 현상이 어려워진 경제여건 탓도 있지만 후원 프로그램 부족과 후원자 관리·확보 소홀도 주요 원인으로 판단, 이를 극복할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승가원은 후원금 감소에 따라 각종 사업이 불안정해지자 경비절감 차원의 조직개편과 함께 다음달부터 '목각인장 판매사업'을 벌여 부족한 복지사업기금을 충당하겠다는 계획을 세워두고 있다. 육수복지관은 지난해 6월부터 실시했던 재활용품 모아 판매하는 '녹색가게'를 활성화하는 한편 제과제빵 판매를 통해 후원금 부족분을 메울 방침이며, 구로 길음복지관은 일일치킨 등 다양한 후원 프로그램 개발을 서두르고 있다.

연꽃마을은 올 한해를 후원회 활성화에 초점을 두고 각종 이벤트와 함께 직원들이 직접 홍보에 나서게 하는 등 후원 활성화 방안을 계획하고 있으며, 모전 청담복지관은 관내 공공관서 등에 모금함을 설치해 모금과 함께 홍보에 전력키로 했다. 또 자양복지관은 홈페이지상

에서 후원자와 대상자를 연계시켜 주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으며, 속초복지관은 지역 공무원들과 불우 이웃간의 1대1 결연사업인 '사랑 가족 만들기'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각 시설들은 후원금 감소가, 개별 후원자들의 후원액이 줄어든 측면도 있지만 기존의 후원이 끊기거나 신규 후원자가 감소한 요인도 상당부분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홍보활동을 늘리는 한편 소식지 발송, 감사편지 보내기 등 후원자 관리와 확보에 만전을 기울일 방침이다.

감사편지·소식지 발송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자문위원 권경임씨(종교사회복지포럼 회장)는 "후원금만 내게 할 것이 아니라 관심과 소속감을 갖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시설견학이나 교양 강좌, 성지순례 등을 통해 후원자들에게 정신적 물질적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한명우 기자 (mwuhan@buddhapia.com)

"환경운동 참여 여성불자 적다"

여성환경연대 설문

환경운동분야에서 일하는 여성의 63.6%(182명)가 종교를 갖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종교별로는 기독교가 44%(80명)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천주교와 불교가 각각 29.7%(54명)와 22.5%(41명)를 차지했다. 99년도 전국 15세 이상 여성의 종교분포가 불교 48.8%, 기독교가 35.1%, 천주교가 13.4%인 것과 비교하면 불교 여성의 환경운동 참여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임을 알 수 있다.

여성환경연대는 환경부의 의뢰를 받아 지난해 8월3일부터 9월10일까지 전국의 35개 여성 환경단체에서 일하는 28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실시한 결과 전체의 82.5%인 236명이 전년대 이상을 졸업했으며 10.8%인 31명은 석·박사 학위를 소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14일 밝혔다.

환경운동을 하게 된 동기로는 현재 가입단체의 환경운동 공감(50%)이 가장 높았으며 가족들의 안전한 먹거리 확보(19.9%), 수질 및 대기오염 관심(12.8%) 등이 그 뒤를 이었다. 김재경 기자

NGO 자료집 만든다

시민사회연구 인명·논문 모집

중앙일보 시민사회연구소가 시민사회(NGO) 인명·논문목록을 발간하기 위해 관련 인물과 연구자료를 모집한다.

대상은 국내 시민사회 자원봉사단체에서 일하는 시민운동가 및 시민운동·NGO·시민운동·자원봉사·비영리단체·민간복지 등 관련 분야의 논문(석·박사)이나 연구자료를 발표한 대학교수 및 강사 등이다. 관련 저서와 논문집은 90년 이후 학위논문이나 저술, 세미나·심포지엄 학술모임 등에서 발표된 것이면 된다. 접수기간은 2월15일까지. 문의 (02)751-9451, ngo21@joon-gang.co.kr

한명우 기자

정도불교대학

6개지역 확대운영

정도회(지도법사 법륜스님)는 서울과 부산을 중심으로 진행해 오던 정도불교대학을 올해부터 대구·대전·청주·마산 정도법당 중심의 6개 지역으로 확대 운영한다.

법륜스님 등 불교·시민사회단체 전문가들이 강사로 참여해 불교교리와 수행, 시민사회운동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강의한다. 2년 과정으로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02)587-8994 김재경 기자

사형제 폐지 종교인모임 결성

불교, 개신교, 가톨릭을 중심으로 사형제도 폐지를 위한 범종교인 모임이 발족했다.

불교인권위원회와 천주교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 등 3대 교단의 사형제 폐지운동 단체들은 19일 서울 중구동천주교주교회의 사무실에서 3차 모임을 갖고 사형제도 폐지를 위한 범종교연합(가칭)을 결성키로 했다.

3개 종단 대표들은 사형제도 폐지를 위한 범종교연합이 구성되는대로

그동안 불교인권위원회와 정의평화위원회가 개별적으로 전개해온 사형제도 폐지 서명운동을 범종교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또 4월말께 사형제도 폐지를 위한 심포지엄을 개최하는 한편 포스터와 소책자를 발간해 대국민 홍보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불교인권위원회 위원장 진관스님은 "사형제 폐지를 위한 범종교연합에는 원불교와 천도교 등 다른 종단들도 모두 참여시켜 생명과 인권 존중을 위한 범국민운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재경 기자

한명우 기자

인터넷 세상 '자유 티베트'

중앙티베트행정부(CTA)는 전 세계인들에게 티베트 및 티베트 문제에 관한 정보를 보다 원활히 전달하기 위해 5일자로 공식 다중언어 웹페이지인 '티베트넷(www.tibet.net)'을 선보였으며, 15일 티베트 글로 이메일 사용이 가능한 '티베트메일(www.tibetmail.net)'도 개설했다.

티베트어로 구성된 최초의 대규모 사이트인 티베트넷은 티베트, 영어, 힌두어, 중국어 등 4개 언어로 티베트의 종교, 문화, 역사발전 및 현재의 이슈 등과 중앙티베트행정부 내의 여러 부서와 기관에 대한 정보도 제공한다.

이번 사이트 개설은 티베트인들이 가장공감에서 투쟁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를 제공함은 물론 티베트 문제에 대한 국제적 이해를 증진시키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재경 기자

티베트넷(www.tibet.net)개설

성북노인종합복지관은 민속명절 설을 맞아 16일부터 19일까지 4일간 관내 무의탁 독거노인 130여명을 대상으로 '사랑의 쌀 나누기' 행사를 가졌다. 이번 행사는 진선여중·고와 관내 초·중·고등학교생들의 쌀 후원으로 이뤄졌으며, 서울지방경찰청 특수기동대 자원봉사자들이 독거노인 가정을 방문해 쌀을 전달했다.

2001학년도 삼화불교대 학생모집

1. 모집학과 및 안내

학과	수업연한	모집과정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특별전형
개호복지사과	2년	■주간 30명 ■통신 80명	·고등학교 졸업 및 동등 이상 학력자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통	·각종단 승려·포교사 ·30세 이상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대신 이력서 전형 가능
불교학과	2년	■주간 30명 ■야간 30명 ■통신 80명		
불교미술(문화재)과	4년	■통신 80명	·본교 소정입학시험 1통	·주인동류등본 1통 ·반명합관 사진 5매
	2년	■주간 30명 ■야간 30명		
중국어(한외대입학과정)과	2년	■주간 30명		
포교사과정	2년	■야간 30명		

2. 학교연혁

- 1989. 7. 학교설립공고
- 1990. 삼화불교대 불교학부, 유아교육부 개설
- 1990. 조계종 포교사 137명 자격 취득
- 1991. 교육부 인정 고등학교 인준
- 1991. 조계종 포교사 148명 자격 취득
- 1992. 제1회 졸업생 배출(국가인정 포교사 119명 자격 취득)
- 1993. 불교미술과·불교보도(신문방송)과 개설
- 1993. 조계종 포교사 142명 자격 취득
- 1994. 국가인정 2급 보육교사 132명
- 1994. 조계사 포교사 183명 자격 취득
- 1995. 중국 남경중의약대학 부교 재결·중국외과 개설
- 1995. 국가인정 2급 보육교사 조계종 포교사 자격 취득
- 1996. 국가인정 2급 보육교사 조계종 포교사 자격 취득
- 1997. 국가인정 2급 보육교사 조계종 포교사 자격 취득
- 1998. 국가인정 2급 보육교사 조계종 포교사 자격 취득
- 1999. 국가인정 2급 보육교사 조계종 포교사 자격 취득
- 2000.12. 국가인정 2급 보육교사 조계종 포교사 자격 취득
- 2001. 1. 개호복지사과 개설
- 2001. 2. 제 10회 졸업생 배출(예정)

3. 특 전

- 설적 우수자 각종 장학금 지급
- 조계종 포교사 자격취득(자격고시용 거처)
- 문화재수리 기술자 자격취득(자격고시용 거처)
- 중국대학교 불교대학원 지도자과정 입학가능
- 개호복지사 2급 자격취득
- 남경중의약대학 한의대 본과 입학가능

4.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2001년 2월 9일까지
- 전형 방법: 서류전형(우편은 당일 소인 유효)

5. 원서교부 및 문의처

- 본교 교학과: TEL. 02)511-2026 ~ 8 FAX. 02)511-1080
- E-mail: samhwade@kornet.net
- 일본동경불교: TEL 055)233-1848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학과로 문의 바람.

한 의 과 대 학

1. 남경중의약대학

■석사·박사 약간명 모집

학과	학 재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한의학과	5년	◇ 고등학교 졸업 및 동등이상 학력자 ◇ 대학 수능 시험 응시여부와 관계없음 ◇ 대학 졸업자(전공불문) ◇ 최종학교 학력증명서 1통 ◇ 외국인 유학생 신청서 1통 ◇ 여권용 사진 3매

2. 학교소개

- ◇ 중국 최고 국립 한의과대학
- ◇ WHO 국제전통의학 협력센터
- ◇ 부속병원 3. 제약공장, 교육병원 12. 제약연구소 등 완비
- ◇ 외국인 기숙사 및 중국어 어학원
- ◇ 군입대 연기가능
- ◇ 인터넷 홈페이지: WWW.NJUTCM.EDU.CN

3. 문의처

- 중국 남경중의약대학
- 주소: 中國 南京 漢中路 282 南京中醫藥大學
- 전화: 25-6798171 팩스: 25-6798168
- 한국 상담 안내처: 삼화불교대학
- 전화: 02-511-2026~8 팩스: 02-511-1080

고등학교과정 학생모집

◆ 교육부 학력 인정 ◆

여러 사정상 고등학교 졸업을 하지 못하신 분
연령 관계 없음

■ 각 학년 편입생 약간명 모집

학과	수업연한	모집과정
고등학교 과정 각학년 편입가능	3년	주간·야간
중학교 과정	3년	주간·야간

- 졸업 후 각 대학에 입학 가능함.
- 정규 고등학교와 교육제도 같음.

- 특 전
- 성적 우수자 조기졸업 가능

- 문의처
- ①③⑤-⑧⑧⑦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11-5

TEL : 02) 511-2026~8

FAX : 02) 511-1080